

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 No.22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5년 6월

제현정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
1. TPP 추진 경과	2
2. TPP 협상 전망	4
3. TPP의 경제적 위상 및 의의	5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 무역관계	6
II. TPP에 대한 설문조사	8
1. 조사 목적 및 개요	8
2. 설문조사 결과	9
(1) TPP에 대한 인지도	9
(2) TPP 참여에 대한 의견	11
(3) TPP 참여에 따른 영향	13
III.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16
IV. 결론 및 시사점	19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제현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e76@kita.net)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 TPP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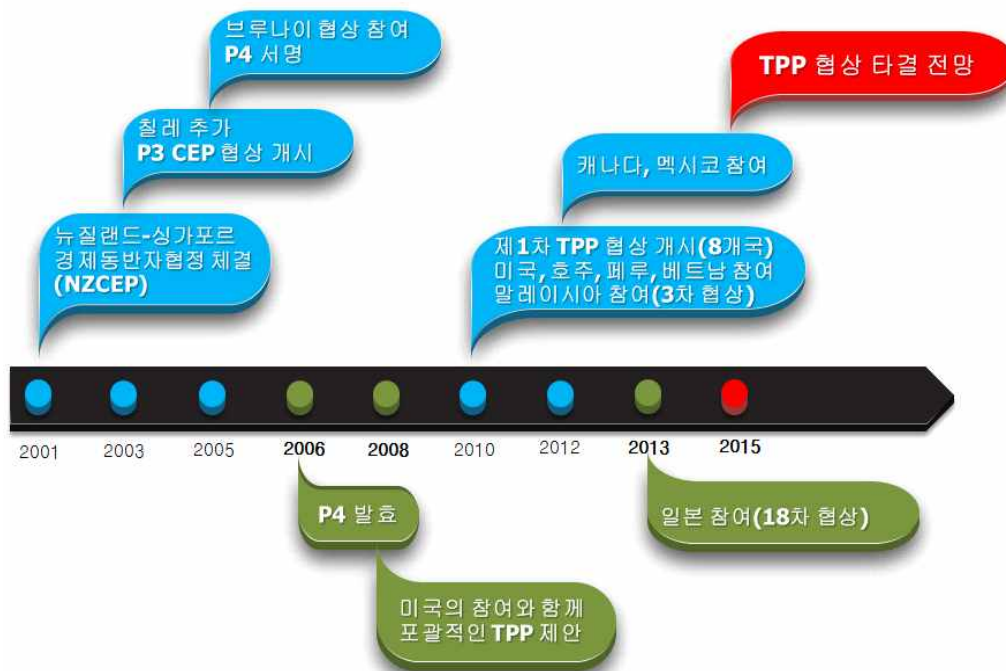
- TPP는 2008년 아시아·태평양 4개국간 P4(Pacific 4)에 참여하면서 확대·발전된 협정
 - 2006년에 발효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4개국간 P4(Pacific 4)가 투자·금융 분야 협상을 개시하는 시기에 미국이 협상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포괄적 협상인 TPP를 제안
- 미국이 참여하는 TPP 협상이 개시(2010.3)되면서 회원국이 11개국까지 확대되었으며, 2013년 일본의 참여(12개국으로 확대)가 큰 전환점으로 작용
 - 세계 경제규모 3위, 무역규모 4위인 일본이 18차 협상부터 참여하면서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메가 FTA로 부상

<TPP 회원국 현황>



- 한편, 일본의 참여로 TPP 협상이 미·일 양자간 협상 국면으로 전환, 농수산물·자동차 등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데 장기간 소요
- TPP 공식 협상은 19차(2013.8)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각료회의와 수석대표 회의를 통해 협상 진행 중

〈TPP 전개 과정〉



2. TPP 협상 전망

□ 미국 의회의 TPA 법안 최종 승인(2015.6.24)에 따라 빠르면 7월 중 TPP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TPP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의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¹⁾를 의회가 8년 만에 승인
- 따라서 TPA의 승인 여부 때문에 지연되었던 TPP 막바지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임
 - 미·일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일본의 민감 농산물²⁾ 및 미국의 자동차 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12개국간의 잔여 쟁점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
 -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에서 TPA가 통과 되는대로 TPP 협상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The Asia Group, 5.14)
 - Andrew Robb 호주 무역부 장관은 미 의회가 TPA를 통과시킬 경우 TPP 협상을 일주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6.17)

□ TPP 협상이 7월 중에 타결되고 금년 내에 TPP 협정을 공식 서명 하게 될 경우, 하반기에는 TPP 협정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

- 미 의회가 새로 부여한 TPA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협정 서명 90일 이전까지 의회에 서명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서명 60일 이전에 협정문을 공개해야 함

□ TPP가 정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12개 회원국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여 금년 내에 TPP의 정식 서명 및 의회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

1) TPA: 미국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TPA에 따라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可否만 결정할 수 있음

2) 일본의 농산물 성역 5개 분야는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등으로 HS 코드 총 586개 품목에 해당함

3. TPP의 경제적 위상 및 의의

□ TPP 12개국의 GDP는 전 세계 GDP 중 36.8%, 교역은 25.3%, 인구는 11.4%를 차지

- TPP는 단일 국가 기준 GDP 규모 세계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포함되어 참여국의 총 GDP 규모(36.8%)가 EU(24.4%) 및 아시아 16개국이 포함된 RCEP*(28.8%)을 능가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PP 회원국의 경제적 위상〉

	GDP (조달러)	비중 (%)	교역 (억달러)	비중 (%)	인구 (백만명)	비중 (%)	TPP회원국 중 FTA 미 체결국
미국	16.8	(22.2)	40326	(10.6)	316.7	(4.5)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
일본	4.9	(6.5)	15061	(4.0)	127.3	(1.8)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캐나다	1.8	(2.4)	9492	(2.5)	35.1	(0.5)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1.5	(2.0)	4778	(1.3)	23.3	(0.3)	멕시코, 페루, 캐나다
멕시코	1.3	(1.7)	8091	(2.1)	118.4	(1.7)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0.31	(0.4)	4430	(1.2)	29.9	(0.4)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0.30	(0.4)	7760	(2.0)	5.4	(0.1)	캐나다, 멕시코
칠레	0.28	(0.4)	1490	(0.4)	17.6	(0.3)	
페루	0.20	(0.3)	817	(0.2)	30.9	(0.4)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뉴질랜드	0.18	(0.2)	841	(0.2)	4.5	(0.1)	미국, 일본, 페루,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0.17	(0.2)	2997	(0.8)	89.7	(1.3)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브루나이	0.02	(0.0)	139	(0.0)	0.4	(0.0)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12개국	27.8	(36.8)	96222	(25.3)	799.4	(11.4)	
한국	1.3	(1.7)	10982	(2.9)	50.2	(0.7)	일본, 멕시코
12+한국	29.1	(38.5)	107204	(28.2)	849.6	(12.1)	

주: GDP, 인구는 2013년, 무역규모는 2014년 기준
자료: IMF

□ TPP 타결시 아시아(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국가들과 북미 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상호간 여러 FTA를 체결한 상황이지만 TPP의 참여로 여러 국가와 일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칠레는 이미 11개 국가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으나, 캐나다는 TPP를 통해 7개의 국가와 새롭게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음

○ TPP는 특히 양자간 FTA 체결에 대한 부담이 큰 미국과 일본이 다국가간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4.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 무역관계

□ 2014년 기준 한국과 TPP 회원국간의 무역규모는 355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에 달함

○ 우리의 10대 무역국 중 5개국(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이 TPP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음

○ TPP 12개국 중 현재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칠레, 페루, 브루나이 등 7개국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자원부국으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음

□ TPP 12개국 중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멕시코이며, 뉴질랜드와는 정식 서명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고 있음

○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 멕시코와 신규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과는 양자 FTA의 수준을 넘는 시장개방을 기대할 수 있음

〈TPP 회원국과의 무역관계(2014)〉

수출 순위	국가	수출 (억달러)	비중 (%)	수입 (억달러)	비중 (%)	무역 (억달러)	비중 (%)	무역 수지	FTA 발효시점
	세계	5727	100.0	5255	100.0	10982	100.0	471.5	
1	중국	1453	25.4	901	17.1	2354	21.4	552.1	서명 완료
2	미국	703	12.3	453	8.6	1156	10.5	250.0	'12.3.15
3	일본	322	5.6	538	10.2	860	7.8	-215.8	협상중단
5	싱가포르	237	4.1	113	2.2	351	3.2	124.5	'06.3.2
7	호주	103	1.8	204	3.9	307	2.8	-101.3	'14.12.12
8	베트남	224	3.9	80	1.5	303	2.8	143.6	'07.6.1
16	말레이시아	76	1.3	111	2.1	187	1.7	-35.2	'07.6.1
18	멕시코	108	1.9	33	0.6	141	1.3	75.8	협상중단
23	캐나다	49	0.9	54	1.0	104	0.9	-5.3	'15.1.1
31	칠레	21	0.4	48	0.9	69	0.6	-27.3	'04.4.1
41	뉴질랜드	17	0.3	15	0.3	33	0.3	2.0	서명 완료
47	페루	14	0.2	14	0.3	28	0.3	-0.4	'11.8.1
61	브루나이	3	0.1	13	0.2	16	0.1	-10.0	'07.6.1
	TPP합계	1877	32.8	1676	31.9	3553	32.4	200.6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II. TPP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 목적 및 개요

- ☐ 우리나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와 관련, 우리 무역업계의 입장 및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사
 - TPP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무역업계의 TPP에 대한 인지도, 참여에 대한 찬반, TPP 참여에 따른 기대 영향 등을 파악할 필요
- ☐ 이에 협회 회원사 및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62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무역업체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 유효표본 : 762개 업체
- 조사기간 : 2015년 5월 11일~5월 27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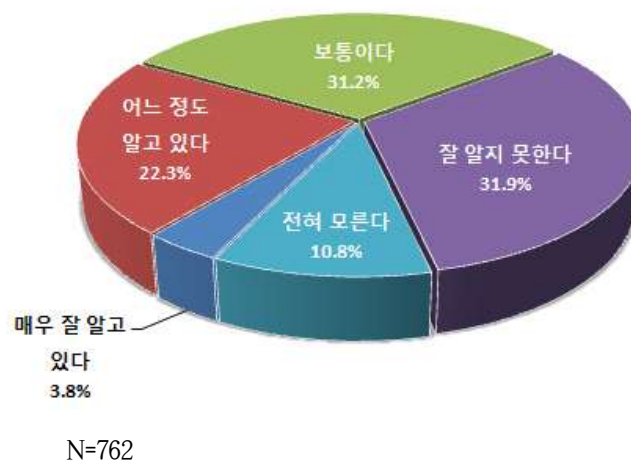
- 응답업체 762개社 가운데 86.2%는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 부합
- 응답업체 762개社는 수출중심(40.6%), 수입중심(15.4%), 수출입 모두 활발(26.8%), 국내납품 중심(17.3%)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구성
- ☐ 동 설문조사 결과는 일부 업종의 경우 유효표본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업종별 무역금액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상의 한계가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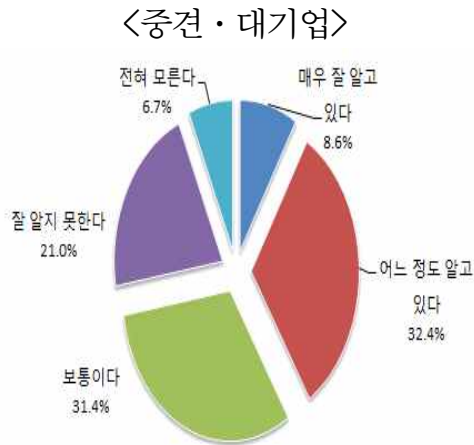
(1) TPP에 대한 인지도

-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42.7%가 TPP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고 있으며, TPP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기업은 3.8%에 불과
- 현재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등 TPP 참여국과 현재 무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PP를 잘 알지 못 하는 기업들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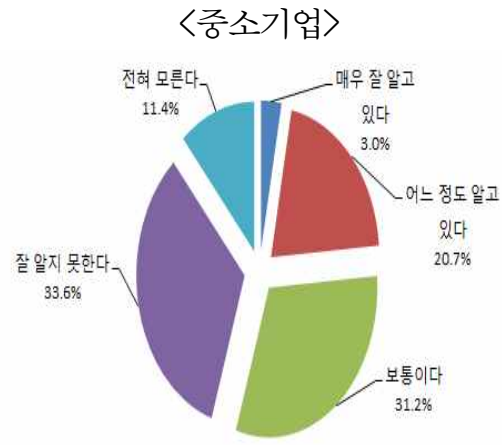
〈TPP에 대한 인지도〉



- TPP에 대해서는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견·대기업의 경우 TPP에 대해 알고 있는(‘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3.7%에 불과
- TPP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기업 비중은 중견·대기업의 경우 6.7%인 반면, 중소기업은 11.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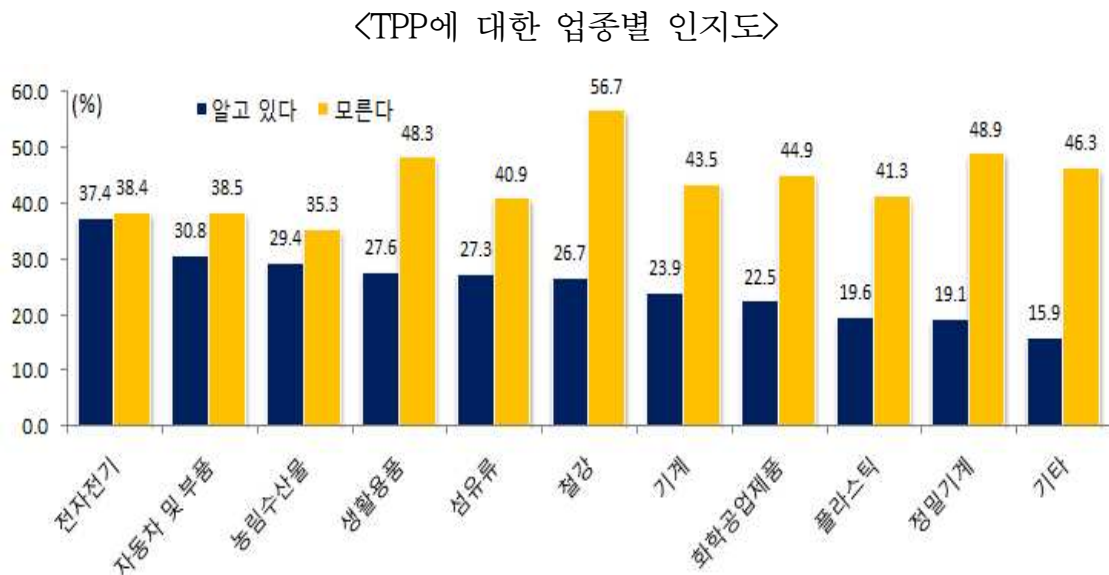
N=105



N=657

□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기업의 TPP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 철강 기업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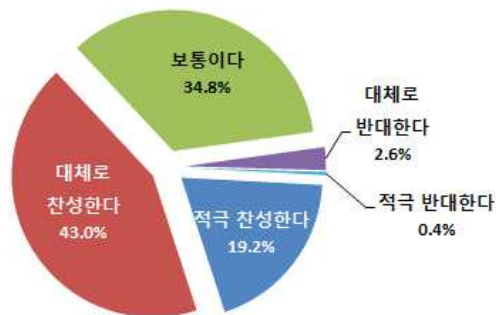
○ 전자전기,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이 TPP에 대해 알고 있는 비중은 각각 37.4%, 30.8%로 높게 나온 반면, 철강은 56.7%, 정밀기계는 48.9%가 잘 알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됨



(2) TPP 참여에 대한 의견

- 응답 업체의 62.2%가 TPP 참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기업은 3.0%에 불과
 - 응답자의 43.0%가 TPP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며, 19.2%는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TPP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은 이유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무역비중이 큰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TPP에 인지하고 있는(「보통이다」 포함) 기업들(437개)의 찬성 비율(73.9%)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325개)의 찬성 비율(46.5%) 보다 높게 나타남

〈TPP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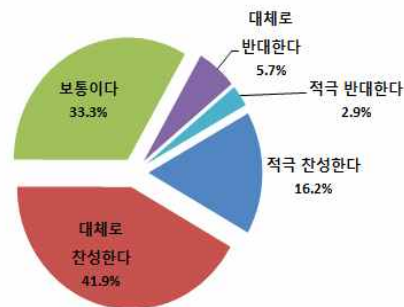


N=762

-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TPP 참여에 찬성하는 비중이 62.9%, 중견·대기업은 58.1%로 조사됨
 -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찬성 비중이 높은 이유는 TPP 가입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는 섬유산업 분야와 일본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는 농림수산 분야 등의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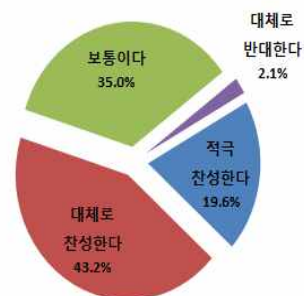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TPP 참여에 반대하는 비중이 2.1%에 불과한 반면, 중견·대기업은 8.6%를 차지
- TPP 참여를 반대하는 중견·대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중견·대기업>



N=105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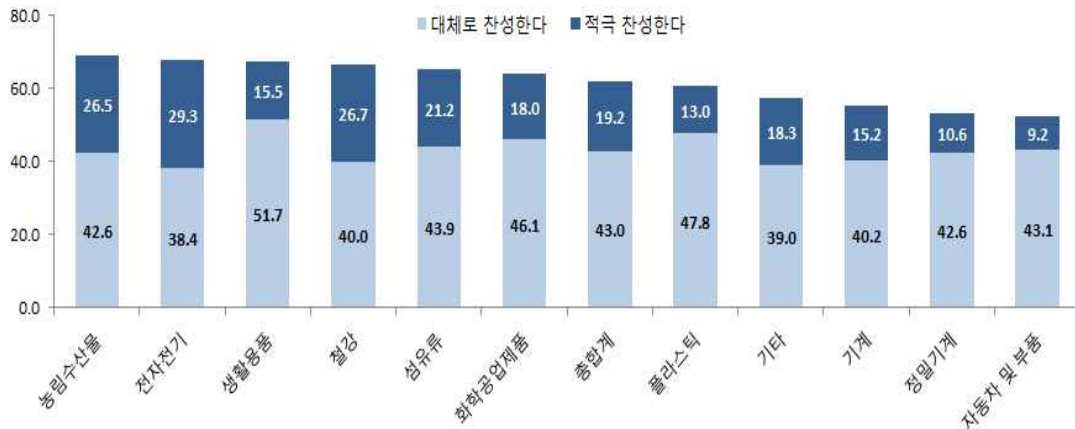


N=657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농림수산물 업계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높은 순서는 농림수산물(69.1%), 전자전기(67.7%), 생활용품(67.2%) 순임
- 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업종은 전자전기(29.3%), 철강(26.7%), 농림수산물(26.5%) 순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물 분야가 특히 찬성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의 최대 농림수산물 수출국인 일본의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자동차 및 부품(52.3%) 기업이 TPP 참여에 대한 찬성 비중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정밀기계(53.2%)와 기계(55.4%) 순으로 조사됨
- 동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분야가 있어 찬성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임

<업종별 TPP에 대한 찬반>



(3) TPP 가입에 따른 영향

□ (긍정적 영향) 우리 업계가 기대하는 TPP 가입의 긍정적인 영향은 TPP 회원국으로의 최종재 수출 확대와 원산지 규정의 단일화 등임

-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를 긍정적 효과 중 1순위로 꼽았으며, 양자간 FTA의 확산에 따른 스파게티볼 현상의 완화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나타남

<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 영향>



- 이 외에도 TPP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용 절감,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 등의 국가에 대한 중간재 및 부품 소재 수출 확대, FTA 미체결국인 일본, 멕시코의 시장 개방 순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

□ (부정적 영향) TPP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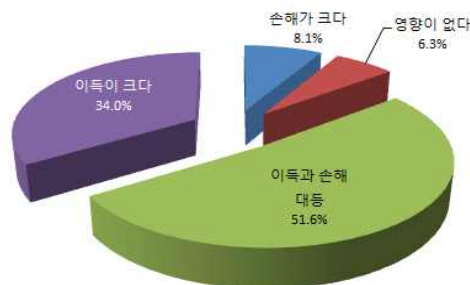
- 한편,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답변도 3위를 차지했으며, 소재·부품 및 기계류의 대외 의존 심화 및 낮은 TPP 참여에 따른 진입 비용 부담을 부정적 영향으로 꼽음

〈TPP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 TPP 가입에 따른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에 달함

〈TPP 가입에 따른 손익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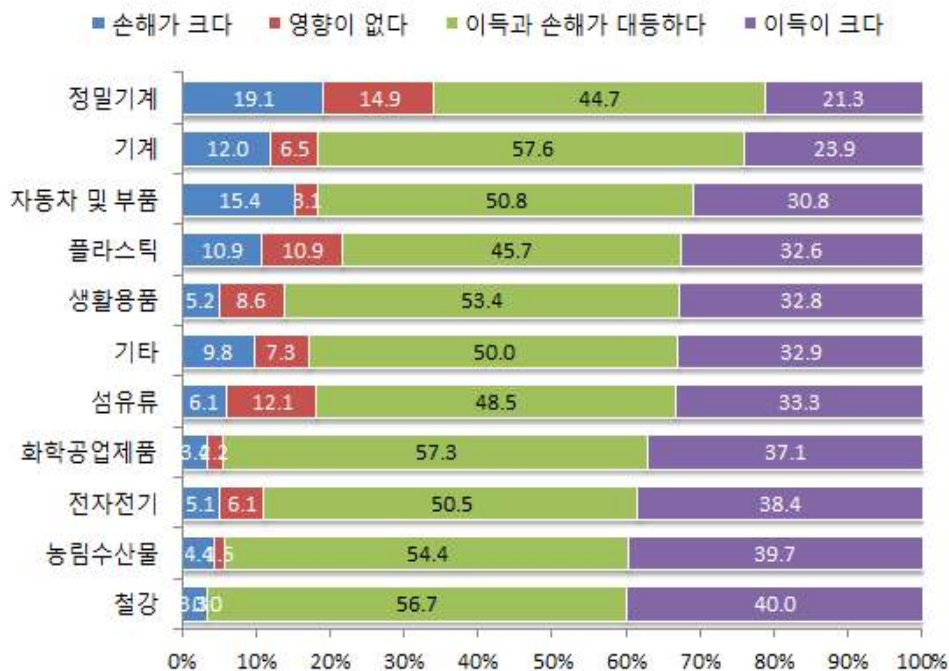
N=762

- 응답자의 51.6%는 이득과 손해가 대등하다고 답변했으며, 34.0%는 TPP 가입의 이득이 크다고 응답

□ 업종별로는 철강 및 농림수산물 기업들이 TPP 가입으로 이득이 크다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 이득이 크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전자전기(38.4%), 화학공업제품(37.1%), 섬유류(33.3%) 등임
- 반면, TPP 가입으로 손해가 크다는 답변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정밀기계(19.1%), 자동차 및 부품(15.4%), 기계(12.0%) 등임

<업종별 TPP 가입에 따른 손익 평가>



III.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 TPP 가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12개국의 시장 개방(일본, 멕시코 신규 개방), ②누적원산지 인정, ③일본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 ④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함
 - 추후 TPP 협정문 공개시 이미 발효 중인 FTA와의 비교 및 산업별 기대 효과와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 필요
- (12개국 시장 개방)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 멕시코 시장 개방 효과 뿐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이미 발효 중인 FTA의 업그레이드 효과 기대
 - 우리의 제 3위 수출 시장인 일본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석유화학, 섬유 및 의류, 농식품 분야의 수출 확대 기대
 - 특히, 일본은 우리의 농림수산물 수출 중 25%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수출 대상국으로 TPP를 통한 일본의 농림수산물 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 한국의 국별 농림수산물 수출 비중 (% , '15 1~5월): ①일본 25.9%, ②중국 15.8%, ③미국 10.8%, ④베트남 5.7%
 - * 일본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2013): 농림수산물 19.0%, 직물 5.4%, 의류 9.0%, 가죽 및 신발류 10.1%
- 단, 일본의 공산품은 무세품목이 많고 MFN 실행관세율 평균이 2.6%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관세율이 낮은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관세 인하·철폐 효과는 제한적
- 멕시코와의 FTA 체결은 섬유 및 의류, 가전 분야 수출 확대 예상
 - * 멕시코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2013): 제조업 5.9%, 직물 9.8%, 의류 21.2%, 전기전자 3.5%, 수송기기 8.5%

3) 2013년 기준(WTO)

□ (누적원산지 인정) TPP 참여국간 누적원산지를 인정할 경우 TPP 회원국에 대한 우리의 중간재 수출 확대 예상

○ TPP 회원국간 누적원산지가 인정될 경우 섬유산업에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섬유소재 수출 확대 전망

- TPP를 통해 미국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가 인하
· 철폐될 경우 생산기지인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2013): 제조업 3.1%, 식물 7.9%, 의류 11.6%

* 미국의 대베트남 의류(HS 61류) 수입 추이(백만 달러, 비중):

(‘10)3359, 8.8% → (‘12)4151, 10.1% → (‘13)4723, 11.0% → (‘14)5418, 12.0%

- 베트남의 대미 의류 수출시 누적원산지를 적용하여 역내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중간재(섬유소재)를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의 TPP 참여시 한국산 섬유소재의 대베트남 수출 확대 예상

* 한국의 대베트남 식물(MTI 43) 수출 추이(백만 달러, 비중):

(‘10)1144, 13.5% → (‘12)1505, 16.2% → (‘13)1804, 19.3% → (‘14)1976, 21.3%

- 만약 한국이 TPP에 불참할 경우 베트남 의류 생산 기업들이 누적원산지 활용을 위해 섬유소재 공급선을 한국에서 TPP 역내국(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누적원산지 효과는 섬유 및 의류 분야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활용의 여지가 크지 않으나 향후 TPP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추가될 경우 활용 가능성 확대 예상

□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은 일부 경쟁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 예상

○ 자동차(부품)와 기계류 일부, 발전 초기 단계의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 등은 시장 개방에 따른 일본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우려

- TPP 참여로 일본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경우 일본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동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일본과의 무역에서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류 및 잡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개방시 적자폭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한국의 對일본 업종별 수출입(2014)>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지
총계	32184	100.0	53768	100.0	-21585
농림수산물	2012	6.3	378	0.7	1634
광산물	7710	24.0	1969	3.7	5740
화학공업제품	3983	12.4	13476	25.1	-9493
플라스틱/고무/가죽	1021	3.2	3022	5.6	-2001
섬유류	867	2.7	426	0.8	440
생활용품	443	1.4	461	0.9	-18
철강금속제품	4841	15.0	9580	17.8	-4739
기계류	4504	14.0	13201	24.6	-8698
전자전기제품	6612	20.5	11137	20.7	-4526
잡제품	190	0.6	119	0.2	71

주: 품목은 MTI 1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 TPP 참여시 미국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대비 필요

- TPP의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높을 경우 기존 양자간 FTA에서 민감성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또는 장기철폐로 설정한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음

* FTA별 우리 농축수산물 양허제외 품목수

- 한-칠레: 21개 품목, 373개 품목은 DDA 협상 이후 논의(사실상 예외)
- 한-페루: 105개 품목(쌀 16개 품목은 양허제외, 89개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 한-호주: 158개 품목, 한-캐나다: 211개 품목, 한-뉴질랜드: 199개 품목

□ TPP 가입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로의 편입과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IV.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의회의 TPA 승인으로 TPP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
 - TPP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은 연내 협정문 서명 및 의회 비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서두를 것으로 전망
- TPP에 대한 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는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TPP 참여 결정 이전에 업계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견·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TPP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해서는 찬성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견·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농림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업종의 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동 업종들의 일본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정밀기계, 기계,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TPP에 가입할 경우 최종재 수출 확대 및 단일 원산지 규정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
 - TPP 가입시 FTA 미체결국인 일본 및 멕시코에 대한 수출 확대 효과뿐 아니라 여러 양자간 FTA의 서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는 효과를 기대

□ 한편,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일부 업종에서 우리와 경쟁관계 또는 우리가 아직까지 열위에 있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을 우려
- TPP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농축산물 수출 대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PP 참여에 따른 추가적 개방에 대한 부담도 있음

□ 전반적으로 무역업계는 TPP 참여에 따른 이득이 손해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향후 TPP 협상에서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 필요

- 특히, TPP에는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 앞서 우리의 분야별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하반기에 협상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정부·학계·업계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우리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되어 기존의 협상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시 보다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 필요